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lt;국제결혼 다문화가정&gt;

최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동명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다(多)모여라. 다(多)문화 소통 우리두리 행사'에 참여한 국제결혼 여성들과 자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제5부 허술한 이주여성 보호정책

&lt;23&gt;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과제

기 | 고

결혼이민자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염

&lt;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gt;

지난 4월 15일자 발표된 대법원 등 기호적국의 '국제결혼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국민 결혼의 11.6%를 차지하는 반면, 국제결혼 이혼율도 해마다 증가해서 2003년 1.6%에서 2006년에는 4.9%로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이혼율이 높은데, 이렇게 농촌 지역의 국제 이혼 비율이 높은 것은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매매형적 결혼 방식과 문화적 갈등,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를 그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다.

매매형적 결혼과 문화적 갈등, 의사소통 부재 등의 이유가 어우러져 아시아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 착취 같은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그 결과가 이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형적 국제결혼의 문제 해결과 성평등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보면 한국가족과 한국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려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지원 대책을 비롯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다문화'를 내세우면서도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차별해소를 내세우면서도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의 존엄이나 인권보호

라는 측면보다는 '한

국가족에 대한 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결혼을 매개로 한국에 왔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남·녀의 성역할이 평등한 문화를 갖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가부장적 한국가족질서로 편입시키고 한국에 동화 내지, 한국화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가족 중심적 지원을 세우다 보니 이주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중심 정책에서 가족구성원인 이주 여성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

현재처럼 국민 8명 중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증가 추세대로라면, 2020년경이면 5명 중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할 전망이다. 국민 20%가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농촌의 경우 절반 이상의 구성원이 이주여성들이 된다는 얘기다. 이미 농촌에 가면 결혼이주여성이 이장이나 마을 부녀회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이제는 결혼이주자를 더 이상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대상이나 복지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적응지원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시민권'을 가진 한국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매김이다.

이주여성을 위한 정착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강화하는 일, 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의 시민이다. 물론 한국화 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대책 급하다

## 통역·자원봉사 등 인적 지원 발굴·확대

## 다문화가정 정책 입안단계 적극 참여를

자를 위한 현재의 정책이 '우리 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대책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상호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립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이주여성이 우리 문화에 적응토록 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 입장에서의 시각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각종 대책이 언어교육을 비롯한 외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지원대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조정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어로 제작된 생활정보책자의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선택권을 확보해주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대책 및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되고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지원대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조정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현재로서 어느 정도 기본틀이 마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정부차원에서 확정·시행되고 있는데다, 전남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가정폭력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 자녀교육 등의 문제는 각종 정책과 지원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일민족·단일문화의 개념이 강한 한국사회가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도록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승미 여성가족부 중앙인간자원센터장은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의 인적 지원 발굴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설립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비롯 대다수 지원기관들이 적은 수의 정규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됨으로써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전문가를 발굴·양성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이 대부분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통역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어가 가능한 인적자원 발굴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역 인재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승미 여성가족부 중앙인간자원센터장은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의 인적 지원 발굴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설립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비롯 대다수 지원기관들이 적은 수의 정규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됨으로써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전문가를 발굴·양성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이 대부분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통역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어가 가능한 인적자원 발굴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역 인재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단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일 뿐이었던 결혼이민자들이 지금은 공생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결혼이민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외국

언어로 제작된 생활정보책자의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선택권을 확보해주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대책 및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되고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지원대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조정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스스로도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영기 다문화가정연대 회장은 다문화가정 스스로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